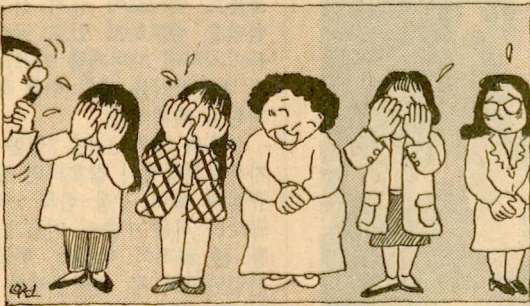


약국에 들러 임신 자가진단 시약을 찾는 여성들이 점차 늘고 있다.

1~2년 전부터 외국에서 임신 자가진단 시약이 수입돼 시판되기 시작하면서 더욱 그렇다. 외국산 진단시약의 효능은 그 이전에 산부인과에서 쓰던 진단시약의 효능보다 훨씬 좋고 간편해서인 듯싶다.

임신진단 시약의 효능이 개선된 것은 임신을 원할 경우 태아와 모성의 조기보호를 위해서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임신을 바라지 않을 경우에도 어느 정도 모성보호에 도움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음성(비임신)의 진단도 여러가지의 이익을 줄 수 있다. 이러한 개선은 분명 의학학상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의학학상의 발전은 혜택을 받게 되는 사람들의 보건에 대한 책임의식의 발전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임신 진단시약’도 좋지만...

특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임신을 바라지 않는 경우인데, 우리나라는 60년대 이후 강력한 인구정책을 실시하면서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성교육이 제자리를 잡지 못해 낙태천국이라는 오명을 얻게까지 되었다. 산부인과학회의 자료에 따르면 1년에 약 1백50만건의 낙태수술이 행해진다는 것이다.(이러한 수치에서 우리나라의 가임여성 가운데 약 20%가 1년에 한번의 낙태수술을 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산아제한 정책, 피임에 관계된 의학학상의 기술발전, 성과 관련된 보건·윤리의식의 제고 등이 3가지가 조화를 이루면서 진행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가장 강조해야 할 부분이 제일 뒷전으로 밀리면서 생기는 문제는 나머지 한부분이 아무리 비약적으로 발전하더라도 결코 해결되지 못할 것이다.

약국에서 판매한 진단시약의 결과가 양성(임신)으로 판별되었을 때 반가워하는 표정보다 낙심하는 여성이 훨씬 많고 심지어는 거의 울상이 되어버리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미혼여성도 적지 않으며, 이들에게 비교적 안전하게 수습하는 방법을 알려주어야만 하는 약사의 마음은 안타깝기만 하다.

요즘과 같은 바캉스철에는 더욱 더...

이 미 영 <약사·부천시 육일약국>